

연구지원 및 평가제도 대폭 변경

대외기관 평가 결과 향상 목적

우리대학 연구실적에 관한 대외 기관 평가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 지원 및 연구업적 평가제도가 개선된다.

연구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연구 성과급과 교내 공모과제사업이 신설되며 연구년 제도와 논문게재 장려금 제도가 변경됐다. 또한 연구 업적평가제도의 경우는 △공동 연구원 인정환산율 △학술발표 연구업적 평점 조정 △외부수탁연구비 연구업적 등과 같은 사항이 변경됐다.

▲연구지원제도

먼저 연구 성과급은 우수한 연구 실적으로 학문적 성과를 이룬 교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여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지급예산 규모는 7억여원 정도이며 2004학년도 연구실적을 반영해 올해 6월이나 7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연간 연구업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연구업적 상위 교원에게만 지급된다. 연구 성과급은 연구실적 평점에 따

라 3개 등급으로 분류돼 지급되는데 등급간 금액차이를 크게 확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로 운영되며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했다.

교내 공모과제사업은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외부기관 및 국제과제 수실적 향상을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중점 육성분야 학제적 선도과제와 일반 학문분야에 대한 기초 학술과제로 분류돼 총 5억여원의 예산으로 지원된다. 먼저 중점 육성분야 학제적 선도과제는 대형 국제과제 수주를 목표로 하는 선도과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선정된 2~3개 연구팀에 팀당 연간 1억원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원한다. 일반 학문분야에 대한 기초 학술과제는 40여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500만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외부기관 공모과제에 응모했던 연구계획서만으로 지원자격을 한정한다. 또한 연구년 기간을 다양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년 제도가 변경됐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년

기간이 1년에서 장기 1년 또는 단기 6개월로 다양화됐고 최초 신청 자격은 5년 이상 재직으로 변동이 없으나, 재 사용시에 장기는 6년 이상, 단기는 3년이상으로 변경됐다. 연구년 신청 또한 3회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바뀌었다. 연구결과보고는 학술지 등급분류개선에 따른 조정으로 국내일반 등급 학술지 이상에서 국내저명 등급 학술지 이상으로 변경됐다. 특히 앞으로는 연구년 신청 시 기본자격요건에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2006년 1학기부터 시행되므로 올해 5월에 예정된 연구년 교수 선발때부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

논문게재장려금 제도도 변경됐다. 그동안 국제·국내 학술지 둘

중 한쪽 학술지만 지원됐던 것을 양쪽 다 허용하고 국내저명 학술지 지원편수 제한을 완화해 추가연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켰다. 국제저명 학술지(A&HCI, SSCI, SCI) 지원금액은 천만원 이내이며 국내저명 학술지(SCIE포함) 지원금은 240만원 이내이고 지원편수 제한을 폐지했다. 한편 국제일반, 국내일반 학술지 지원금은 지원 중이었으며 지원금 규모는 신설 지원사업으로 인해 금액이 국제저명 200만원, 학진등재·SCIE 80만원, 학진 등재후보 50만원으로 조정됐다. 공동연구원 금액 환산 방법도 변경됐다. ▶2면으로 이어짐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공동연구원 금액 환산방법)

인원	현행		변경후			비고
	주저자	공동	주저자	공동연구원	구분없는 경우	
단독	100%					n:연구원수
2인 공동연구	80%	70%	2/(n+1)	1/(n+1)	1/n	
3인 공동연구	60%	50%				
4인 이상	50%	30%				

* 본교교원이 주 저자인 경우 n에서 대학원생 제외

SRC A등급 ERC B등급

우리학교 우수연구센터 SRC(소장=강태원·물리학과)와 ERC(소장=이진구·전자공학)가 한국과학재단에서 실시한 우수연구센터 중간평가에서 각각 A등급과 B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SRC는 기존 연구지원금의 10%를 증액기금으로 지원받고 ERC는 3~5% 증액된 기금을 지원 받는다.

두 연구 센터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한국과학재단과 체결했다.

특히 SRC는 3년마다 실시되는 평가에서 두 번 연속 A등급을 받아 유례없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또한 이는 이번엔 평가대상이었던 6개 연구 센터 중 최고의 성적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강태원(물리학과) 교수는 "차세대 반도체 재료 연구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보궐선거 실시

오는 29일부터 3일간

37대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오는 29일부터 3일간 치러진다.

후보자등록은 오늘(14일) 5시까지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용환·국교4) 사무실에서 가능하다.

출마자격은 △6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후보자 추천을 6백명 이상 받은 자 등이다. 선거운동은 내일(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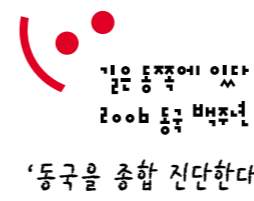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총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후보한 선거자가 없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후보들이 입후보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건설적인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3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과대 △사과대도 중앙선거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중한 한명... 학생회 선거가 오는 29일 부터 진행된다. 위 사진은 어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서명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다. 황주상 기자 hjs@dongguk.edu

종합기획 1. 학교정책·행정분야 ② 대외홍보



일관된 홍보정책 부재

마스터플랜 수립... 홍보 효과 극대화해야

대학 정원이 지원자 수보다 많은 공급 초과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점차 대학에도 기업과 같은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험생을 역시 학교 서열에 의존해 대학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차 그 학교의 전망이나 차별화된 대학 이미지 등을 선별해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들은 다양한 대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그 학교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형성, 강화하는 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대학 홍보가 그동안 단 순히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넘어, 차별화된 그 학교만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 대학에서는 학교의 전반적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실의 역할과 위상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홍보 분야를 크게 세분화로 분류해, 언론 홍보와 내부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등 전반적인 홍보에 관해서는 홍보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학 홍보의 경우는 학생선발실, 발전 기금 모금과 관련한 홍보는 대외

협력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대외협력처 산하로 홍보실을 운영하며 학교 전반적인 홍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학교 홍보실의 설립에 의존해 대학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차 그 학교의 전망이나 차별화된 대학 이미지 등을 선별해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홍보실의 주요 과제인 학교의 차별화된 이미지 메시지를 내·외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타 대학들에게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타 대학들의 경우 학교 내부의 전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그 학교에 걸맞은 모토를 선정하고 학교의 전반적인 사업이나 홍보에 있어 이러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학교의 경우는 뚜렷한 모토조차 선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숙명여대의 경우 학교 전체의 이미지를 '리더십'으로 선정해 학사 프로그램을 비롯해 외부 홍보, 학교 행사 등에서도 이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숙명여대 홍보실의 김주영 직원은 "학교에서 전체적인

설정해,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방향을 리더십과 관련한 이미지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홍보 마케팅을 통한 이미지 형성의 경우는 단기에 이뤄지는 사안이 아닌 만큼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그동안 뚜렷한 홍보와 관련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부재해 단기적인 홍보 업무에만 주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학교 홍보실에서는 타 대학들의 사례를 벤치 마킹해 향후 5년을 계획으로 하는 전략적인 홍보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학교의 대표적 이미지와 관련한 모토를 설정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보실의 한 관계자는 "학교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홍보와 이에 따른 학교의 내실 역시 뒷받침 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학교 이미지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축구부 제일대항과 경기 승리

내일 세계사이버대와 두번째 경기

우리학교 축구부(감독=김용해)가 내일(15일) 남해 치구장에서 세계사이버대와 두번째 경기를 한다.

이는 우리학교 축구부가 출전한 '2005 제53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 경기의 하나로서, 우리학교 축구부는 지난 11일 제일대항 축구단과 첫 경기를 가져 3:0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는 총 48팀이 출전해 3팀씩 16개조로 나뉘어 진행하며 각 조 2팀만이 본선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축구부 감독은 "게임마다 선수들과 최선을 다해 좋

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구부 전국대학야구 출전

한편 야구부도 오는 20일부터 '2005년도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 출전한다. 첫 경기는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동대문야구장에서 인하대와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1팀이 출전했으며 우리학교는 △경희대 △인하대 △한양대 등 다른 6팀과 함께 B조에 속해있다. 각 조에 상위 3팀이 결승토너먼트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생협조합 가입 접수 중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이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는다.

조합원 가입은 우리학교 △교수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이 가능하며 생협 홈페이지와 생협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비는 1만원이고 졸업할 때 가입비와 함께 1천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생협은 조합원에게 △한가위 귀향 편의이용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문화체육 답사 등 생활문화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알림

본사 수습기자 선발관례로 21일자 신문은 없습니다. 다음 신문은 3월 28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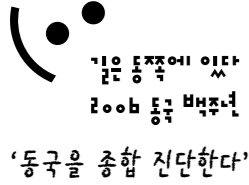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지금 바로 도전하십시오!”

응시자격 :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 3월 17일까지
면접일시 : 3월 16일, 17일 오후 6시
원서교부 : 중앙도서관 옆 V동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문의 :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02)2260-3491~2
기자혜택 : 장학금, 해외연수

모집인원 : 취재기자 3명, 사진기자 1명
지원자격 : 본교 재학생(학년 무관)
원서접수 : 3월 18일까지
선발방법 : 면접, 기사작성(단, 사진기자의 경우 포트폴리오 지참)
활동기간 : 2005년도 1학기
원서교부 : www.dgupress.com, 중앙도서관 옆 V동 1층 동대신문사
기자혜택 : 소정의 활동비, 원고료

종합기획 1. 학교 정책·행정분야 ② 대외 홍보



차별화된 이미지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구성원들 참여의식 부족 ... 전문성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돼야

우리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동국대학교'를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나 문구를 가장 먼저 떠올릴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교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교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학교가 고착화 돼 있고 보수적으로 느껴진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게 나타났다.

차별화된 이미지 홍보 부족

이에 따라 우리 학교의 불교적 이미지를 잘 살리면서도 감성적인 신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이미지 형성과 홍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몇 년째 이와 관련한 활동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전통적인 학교 이미지에서 탈피해 젊은 감각의 신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로 방향을 전환해 홍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려대의 경우 그동안 지속해 오던 '민족' 고대의 이미지를 벗어나 세계화에 발맞추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세계' 고대로 그 모토를 변화시키고 여러

사업이나 홍보 등을 관련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학교 홍보 시스템 상으로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학교를 홍보하기 위한 학교 관련 홍보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부재해, 학교의 전반적인 홍보소재를 찾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보실의 한 관계자는 "100주년을 맞아 외부의 홍보 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할 계획이 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소재 발굴 시스템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성균관대에서는 학교 홈페이지 내 홍보소재 제안방과 학교 발전 제안방을 마련해 전 구성원들이 학교 홍보 소재를 발굴하는 데 참여를 이끌고 있다.

한편 우리학교의 경우 현재 홍보실장을 비롯한 4명의 직원이 학교 소식지 제작, 언론 보도자료 작성, 언론 기관 기자 관리 등 전반적인 학교 홍보와 관련한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외부 활동이 많고 여러 사람이 기관 등을 방문해야 하는 만큼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점차 각 대학에서 이미지 홍보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 홍보실 역시 전문화 돼 가는 것이 추세이다. 이에 일반 교직원 이외에도 홍보나 언론 계통에 감각이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우

리 학교역시 이번 학기부터 카피라이터를 기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중에 있지만 앞으로 더욱 전문성 있는 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구성원의 노력 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 홍보시스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학교 홍보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 학교 전체 구성원들이 홍보 아이디어의 창안과 소재의 발굴 및 제보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홍보실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재학생 홍보 도우미를 활용해 학생들을 학교 홍보에 참여시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입학 관련 홍보뿐만 아니라 재학생 광고 모델, 학내 각종 간행물 제작에 있어 통신헌 등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대학에서는 학교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전문성을 기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 대행업체 등을 활

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학교 역시 일부 홍보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업체 등을 활용해 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홍보실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학교에 대한 홍보 의식을 고무시킬 수 있도록 홍보 전략 과정 등의 교육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또한 학교 이미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학교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차별화 된 이미지 개발과 더불어 학교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 구성원들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우리학교의 위상을 한 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날이 멀지 않으리라 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학교상징꽃 연꽃



▲ 학교상징동물 코끼리

우리학교 입학홍보 실태 점검

전략 긍정적 ... 조직상 인력부족 한계

우리나라 대학 이미지 형성에는 어느 요인 못지않게 신입생 입학성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때문에 상위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우수한 고등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입시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리대학은 교무처 내 학생선발실에서 입학관리와 기획, 홍보를 모두 총괄한다. 이 중 입학홍보 활동으로는 △입시설명회 △입학 홈페이지 관리 △입시요강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각종 매체 광고 등이 있다. 지난해 학생선발실이 2004학년도 신입생 1천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지원대학 선정에 가장 유용한 정보취득수단은 △사설입시기관의 배치기준표(30.8%) △대학 홈페이지(29.3%) △입학안내 사이트(24.6%) 순서였다. 그리고 대학 지원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사람으로는 26.5%의 학생이 담임교사를, 23.6%는 가족을 꼽았다.

또한 신입생의 67.5%가 우리학교를 지원하는 데에 신입생 모집요강 책자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온라인 입시설명회가 도움이 됐다는 응답한 학생들도 61.5%를 차지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리학교 입학홍보전략은 대체적으로 추세에 맞게 잘 짜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홍보력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는 이메일 광고 등은 폐지하고, 온라인 홈페이지 관리와 지방순회 입시설명회를 더욱 강화했다.

학생선발실 입학홍보 담당자는 "지방 대도시에서 지역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는 호응이 높고 성과도 좋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장학생들을 활용해 입학 Q&A를 실시간으로 답해주고 있어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입학에 담당하는 인원에

한계가 있어 홍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선발실은 과장을 포함해 직원이 총 5명이며 이 중 입학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단 한명뿐이다. 때문에 기획력과 일의 추진에 있어서 인력부족이라는 한계를 감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입시설명회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학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오차가 들어온 10여 곳에만 겨우 방문했다. 각각 업무가 있어 동원할 수 있는 직원이 한명뿐이었던 것이다.

한양대의 경우 지난해부터 입학처를 분리해 입학처 아래 입학관리과와 입학기획·평가, 입학홍보계로 나뉘어 총 14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며 홍보계에는 3명의 직원이 있다. 이전까지 교무처 아래 입학관리실이 있었는데 입학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분리된 것이다. 안중길 한양대 입학홍보계장은 "조직개편 후 결계절차가 간소화돼 일

무진행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전국 약 4~500 곳의 고등학교에서 직접 입시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년 전부터 입시정책을 조사하고 차후년도 입시정책을 연구하는 2명의 전문연구위원을 두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경희대와 성균관대의 경우도 기존에 교무처에 소속돼 있던 입학관리실을 최근 몇 년 새 입학처로 분리해 그 아래 입학관리팀이 있도록 조정했다. 모두 입학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체제로 바꾼 것이다. 때문에 우리대학 또한 현재의 조직이 입학관리에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개선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입시홍보전략 자체로는 대학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실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사제도와 획기적인 대학 커리큘럼을 고안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우리대학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최선책일 것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사설

실효성 있는 교육강화 제도 시급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우리학교 '2004 학문분야평가' 결과가 지난 2월 발표됐다. 결과를 살펴보면 기계공학분야는 교수·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이 부진했고 신문방송·광고홍보학 분야도 교수여건·연구·개발 분야에서 우수 미만의 점수를 받는 등 대부분 교육여건 점수가 저조했다.

학교는 이러한 대외 평가가 있을 때마다 각종 대비책을 제시해 왔다.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강화를 위한 명목으로 지난 10월 개선편 '교육업적평가 및 보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지원제도 및 연구업적평가제도 역시 개선해 교수들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된다.

개선편 교육업적평가와 연구평가에선 평가 범위를 정교수까지 확대했다. 논문을 한편도 게재하지 않은 정교수의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교육업적평가를 학생지도와 상담, 교수법 향상 노력 등 세부적인 평가 항목으로 나눴다.

이 밖에도 단순하게 연구량만 늘린 것이 아닌 보상체계도 갖춰져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교수여건 등 대학 수준도 제고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선책에 대해 학교가 교수들에게 갑작스레 통보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교육과 연구활동을 함께 개선시키는 제도인 만큼 학내구성원 서로가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길 바란다. 행여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구성원간의 대안없는 비난보다 합리적인 비판과 조언이 필요하다. 구성원간의 화합을 통한 연구 교육분야의 분발로 이번 만큼은 '교육강화'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국만평

이호선 icezz@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6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운, 주간 윤재웅, 편집국장 장성재, 편집장 정경훈, 편집장 황주상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67

2005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05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학칙 제5조, 학사내규 제29조 - 31조
2. 신청자격: 가.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 나. 취득학점이 200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기준 학점 이상입니다.
3. 신청기간: 2005. 03. 21(월) ~ 03. 23(수)
교무처
2005학년도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
1. 수혜대학: 일본 대정대학 (大正大学 · Taisho University)
2. 파견기간: 2005. 9. ~ 2006. 8. (1년)
3. 선발인원: 1명
4. 지원자격: 가.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서울캠퍼스 학부과정 3학년(5학기) 재학생으로서 나. 학부과정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다. 학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별입학자는 지원 불가
5. 파견조건: 가. 본교측 1)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본교 장학선발규정에 의거한 해당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의 36%를 장학금으로 지급(감면함). 2) 파견기간 중에 취득한 교과목의 명칭·학점·성적은 수혜대학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과목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결정한다. 3) 학점인정 범위는 해당학과 졸업학점의 1/4까지로 함. * 석·박사과정의 경우는 대학원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일본 대정대학측: 학비 면제, 소정의 장학금(월 ¥80,000) 지급, 기숙사비 본인 부담
6. 전형방식: 가. 학부생: 50% 나. 면접: 50%
7. 신청서류: 가.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 및 성적증명서(학부과정성적 포함) 각 1부 라. 어학능력인증서(IELT, JPT) - 소지자에 한함
8.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접수: 2005. 3. 8(화) ~ 3. 15(화), 국제교류실 나. 면접: 2005. 3. 16(수) 10:00 ~, 국제교류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실 ☎ 02-2260-3576, 해와관 1층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제교육원

2006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0000명
2.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및 2008. 2월 졸업 예정자 나. 임원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88. 2. 28 ~ '80. 3. 1) * 국가고시 합격자는 29세 이하 나. 군 인사법 제10조 징고임용 자격상 결격사유 미 해당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5. 3. 14 ~ 4. 23
4. 구비서류: 가. 지원서(사진첨부) 1부 바. 사진 4매(4×5cm). 나. 수능성적(원점수) 1부 사.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라.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아. 가산점 증명서류 각 1부 마. 대학 성적증명서 1부 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3부. (부모사망시 제적등본 1부 추가)
5. 선발 방법 / 일정
구분 학군사관
지원서 교부 / 접수 2005. 3. 14 ~ 4. 23
체력검정 / 인성검사 2005. 4. 25 ~ 4. 30
신체검사 2005. 5. 9 ~ 5. 21
면접평가 2005. 5. 9 ~ 5. 21
신원조회 2005. 6. 13 ~ 8. 27
최종합격자 발표 2005. 8. 28 ~ 9. 3
6. 최종 합격자 발표: 2005. 8. 29 ~ 9. 3
7. 특전: 가.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 나. 국내외 민간 대학원 학비 지원가능 (장기 지원자) 다.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장기 지원자) 라. 군 복무간 복지 혜택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결혼시 군 관사 입주, 휴가 / 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대학원 진학시 교육비 지원
8. 접수 및 문의처: 학군단 (전화, 서울 2260 - 8537)
제 112 학생군사교육단

2005 전반기 군 장학생 모집
1. 모집인원: 2학년(000명) 남학생
2. 지원자격: - 임원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88. 7. 31 ~ '80. 8. 1일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5. 3. 14 - 4. 23
4. 구비서류: 가. 지원서(사진첨부/서약서 각 1부 사. 사진 4매(4×5cm) 나. 수능성적(원점수) 1부 아. 재정보증 관계서류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라.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자.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마. 대학 성적증명서 1부 차. 가산점 증명서류 각 1부 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3부
5. 선발 방법 / 일정
구분 군장학생
지원서 교부 / 접수 2005. 3. 14 ~ 4. 23
체력검정 / 인성검사 2005. 4. 25 ~ 4. 30
신체검사 2005. 5. 9 ~ 5. 21
면접평가 2005. 5. 9 ~ 5. 21
신원조회 2005. 6. 13 ~ 8. 27
최종합격자 발표 2005. 8. 28 ~ 9. 3
6. 최종 합격자 발표: 2005. 8. 29 ~ 9. 4
7. 특전: 가. 학군 후보생 선발시 우대 (지원시 "가"점 부여) 나.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수혜보조비 지급 (연2회 등록금 심비 전액 지급) 다. 임원 / 입대시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 보직 활용 라. 국내외 민간대학원 석·박사 취탁기회 부여(장기 복무시) 마. 우방국의 선진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고급 지휘관으로 성장할 수 있음 바. 기혼자 군속소 지원
8. 접수 및 문의처: 학군단 (전화, 서울 2260 - 8537)
제 112 학생군사교육단

보리소

육신통(六神通)

불교공부를 하다보면 가끔 매력적인 말들이 있다. 성불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부터 큰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격려도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육신통이다. 천안통(天眼通)·천이통(天耳通) 등 여섯가지의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개념이 얼른 머릿속에 잡히지 않는다. 천안, 하늘세계를 보는 눈인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 적도 있다. 타심통(他心通)이라는 말은 알아들겠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줄 알면 얼마나 신날까를 상상해 본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타심통은커녕 자심통(自心通)도 못했으니 딱한 노릇이다. 우선 신통의 종류가 여섯인 것에 주목해 보자. 불교에서의 여섯이라는 숫자는 흔히 육근(六根), 육경(六境)하는 그 여섯가지의 감각기관을 가리킨다. 또 육신통의 배열이 안·이·비·설·신·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육신통은 나의 주관적 감각을 승화(昇華)시킨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불교공부를 하기 전에는 온통 직개심과 이기심으로 무장했었는데, 불자가 된 이후부터 그 안목과 마음이 달라졌다는 의미이다. 젊었을 때 나는 이 신통력을 손오공처럼 되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하늘을 날고, 축지법을 써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존경을 받았다고도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신통은 결코 외형적 변화만은 아니다. 내면이 무르익어서 처신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천안의 뜻도 결국 높고, 멀리 보는 안목이라는 뜻이다. '화엄경'에는 일중일체(一中一切)라는 법어가 있다. 분석적으로 보면 작은 것들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는 뜻이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미세한 하나하나에도 전체를 관통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의미이다. 요즘 개혁이라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다. 그러나 개혁이란 법을 뜯어 고치고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서는 결코 성사될 수 없다. 신통력으로 자신을 바꿔 가는 사람들과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법이다.

정병조
문과대 유리문화학과 교수

한승조 전 고려대 명예 교수의 망언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그의 망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조선에 축복이었다'는 대목이다. 물론 이와 비슷한 망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망언은 아예 뉴스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최근에는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같은 수준 이하의 책도 여러 권 출간되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올해로 개교 100년을 맞는 명문 사학의 명예 교수가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고대 총학생회는 물론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앞 다퉈 그의 발언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의 조직적인 독도 분쟁 지역화 전략에 따른 독도 영유권 주장도 여론을 들쭉이는 데 한 몫 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했는지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한 외교통상부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일본 측의 태도를 성토했고 나섰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남쪽은 물론 북쪽까지 한목소리로 '과거청산'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 반대'를 외치고 있으니 가히 전 민족적인 반일 규탄 여론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역사의 현실

하지만 이에 대해 필자는 뭔가 걱정스럽고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작년 이맘 때를



논단

방학진
민족문제 연구소 사무처장

게을리한 과거사 청산과
빼놓아진 우리 역사

역사를 재조명하자

상기해 보자. 텔런트 이승연 씨가 이른 바 '일본군 위안부' 누드 사진으로 한바탕 흥을 차룬 바 있다.

그 당시 모든 언론이 그녀에게 역사와 할머니들의 회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결국 그녀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해 사죄하기에 이르렀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저 비난의 대상이 이승연에서 한승조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한승조와 이승연의 역사 인식을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사회가 이처럼 우리 역사에 대해 취약한 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단면을 극

명하게 드러냈다고 보아야 한다.

역사를 대하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자. 대학 입시에서 역사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락한 것은 이미 오래 된 이야기며, TV 드라마 '야인시대'나 '영웅시대' 같이 역사 외곡을 자행하는 드라마가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가 비밀 광복군이었던 것이 사실인양 인터넷에 마구 유포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나아가 백범 암살 배후인 김창룡을 비롯한 많은 친일파들이 아직도 버젓이 국립묘지에 묻혀있고 친일파 흉남과, 현재명, 김기창, 김성수 등이 여전히 위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

이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과연 우리는 한승조, 이승연을, 일본 우익 정치인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과연 우리는 망언의 당사자들에게 '역사는 이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설복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한승조 망언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친일청산' 또는 '과거사 청산'을 게을리 했던가를 아프게 각인시켜주고 있다.

제2, 제3의 한승조는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다. 군사평론가 지만원과 월간 조선 사장 조갑제가 이미 또 다른 한승조를 자처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심지어 가수 조영남까지 '친일이 뭐가 나쁘냐'고 선구자인양 외쳐대고 있다.

정부는 올해가 광복 60년이라며 갖가지 문화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올해는 국치 100년, 분단 60년,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결코 기쁘다고 즐거워할 수만 없는 것이 올해이다. 그동안 우리는 자랑스런 것만이 역사로 취급받는다 배워왔다.

그러나 오히려 부끄러운 기억과 그 기억의 공유와 전승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는 더욱 성숙해진다. 나라를 되찾은 '광복'이 한없이 기쁜 이유는 나라를 강제로 빼앗긴 '국치'의 기억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한승조 망언은 오히려 우리들이 역사 앞에 얼마나 겸허했는지 되돌아 볼 좋은 기회 일 것이다.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민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 · 재배포 : dgupress@dongguk.edu



봉사활동수기

6개월간의 필리핀 봉사

우리학교 윤인영(국제4) 학생이 오는 16일부터 6개월 간 필리핀 톤도에서 세계청년봉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떠난다.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윤인영 양의 현지 봉사활동과 관련한 수기, 활동 사진 등을 연재해 다들 계획이다.

가슴속의 여섯 글자 '해. 외. 자. 원. 봉. 사'
1999년 신문을 보던 나는 모퉁이에 난 초그만 기사에 눈길이 멈춰졌다.

'세계청년봉사단(KOPION)은 전 세계 NGO에 파견되어 평균 6개월간 봉사활동을 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파견단원은 현지에서 아동교육 구호 지역개발사업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해외자원봉사? 이런 것도 있구나. 대학가면 꼭 한번 해보아야지. 이 때부터 '해외자원봉사'라는 여섯 글자를 가슴에 담게 되었다.

그로부터 6년 뒤, 난 국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고, 그저 다짐만 했던 나의 결심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막연히 가슴에 담아두었던 여섯 글자를 꺼내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혀 지원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 막상 지원을 하게 되니 그 과정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국문·영문지원서·소견서 제출, 서류선발 후 치러진 국문·영문면접과 논술, 초기선발 후 시행된 합숙교육, 국내교육까지 거의 3개월 가량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단 한번의 망설임 없이 휴학을 하고 나의 결심을 알렸을 때 주위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어학연수나 갈 것이지 왜 가느냐? 휴학까지 하면서 꼭 그래야만 하느냐? 안 가면 안 되겠느냐? 말리고 싶다, 등등 격려의 소리보다는 염려의 소리가 자꾸만 들려왔다. 하지만 이런 말들에 흔들리기엔 이미 가슴 깊이 뿌리내린 여섯 글자의 자리가 너무나도 컸다.

이제 나는 세계청년봉사단(KOPION) 12기 단원으로 6개월가량 필리핀 현지NGO기관에 파견되어 아이들의 음악·미술교육을 맡게 된다. 파견기관은 마닐라 근처 Tondo라는 곳에 위치하는데 톤도는 필리핀의 최대 빈민가이자 세계적으로 많은 마약중독자를 보유(?)한 악명 높은 도시이다. 혼자 파견되기에 현지에서 겪게 될 모든 일들이 나에게 Survival일 것이다. 겁없이 도전하기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사실 두렵기도 하고, 답을 찾지 못한 물음표들이 아직 내에게는 많다. 하지만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 친구들, 선·후배, 교수님, 이 자리에서 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내 선택에 확신을 갖고 내 자신을 믿어보려나.

앞으로 펼쳐질 나의 6개월이 기대된다. 나의 물음표들은 어떤 느낌표가 되어갈까?

6개월 뒤, 내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물음표들이 느낌표가 되어있길 바라며 나의 필리핀생활을 시작해보려나.

윤인영(사과대 국제4)



지난호(1400호 2월 28일자) 동대신문 4면 김정매 퇴임교수 인터뷰 기사 중, '여자교수는 학교에 혼자였다'를 '문과대에서 여자교수는 혼자였다'로 '외국어 강사'를 '외국어 교수'로 바로잡습니다.

'언제나 소박하게'를 읽고
소박한 삶에서의 진정한 행복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고 사회현실도 그렇게 보이까 지 한다. 그렇다면 과연 돈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 존 레인은 돈으로는 결코 행복까지 살수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 이유로 소위 성공했다는 이들보다 오히려 소작농들이 정신적으로 더 풍요롭고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든다.

이처럼 이 책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해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내용을 말이다.

적게 가진다는 것은 삶을 소박하게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 곳곳에서는 왜 소박하게 살아야하는지, 어떻게 하면 소박하게 살 수 있는지, 소박하게 살면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등의 내용이 소개돼 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소박한 삶이란 빈곤, 궁핍, 게으름 혹은 자기 부정의 삶

을 살거나 문명과 단절 된 채 고립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소박한 삶'이란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삶을 더 풍요롭게 영위해 나가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소박한 삶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단과 실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손에 익지 않아 때론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정체됨을 두려워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변화' 역시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박한 삶이 지니는 놀라운 행복의 마력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번거로움은 감수할만하지 않을까. 자신의 생활패턴이 변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그 변화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강건욱(불교대 인철4)

용기내어 가입한 동아리
함께 성장하는 너와 나

비극적이게도 나는 몸치이다. TV에 나오는 가수들의 춤을 따라하려니 박진감 넘치는 화면은 속절없이 확확 지나가 버리고 이제 좀 알아 보겠다 싶으면 이번에는 가수의 얼굴이 텔레비전의 화면 가득 들어찬다. 꼭 방송안무가 아니더라도 음악에 따라 흥겹게 리듬을 타다보면 한껏 멋드러진 동작이 될 수도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품은 커녕 덩실덩실, 변함없는 덩실이 모습이다.

정말 참 한번 끝내주게 추고 싶다! 한 많은 덩실이가 그만 춤꾼을 꿈꾼 것, 디더어 꿈틀 거린 용기가 변함없는 일상의 정상궤도를 이

독자 사진첩



사과대 노래패 '열음'의 정기공연 사진이다. 올해도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와 같이 노래 불렀으면 한다.

- 최해진(사과대 행정3)

달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행사 때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 SSID.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 마음으로만 간직했던 동아리였지만 기왕에 든 춤바람, 화려하게 라틴댄스에 빠져보겠노라.

어렵게 가입한 동아리에서도 여전히 비련의 블랙홀은 쉽사리 벗어날 수 있는 굴레가 아니었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으니 음악만 나오면 허우적대던 내가 무대에 남들 앞에 서서 공연하게 된 것은 애정 어린 선배들의 끈질긴 지도와 나죽었소 생각하고 인간 워크맨이 되어 무한반복, 그리고 결국은 정, 정, 정!

춤을 통해 너와 나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성장해가고 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정미진(문과대 국문3)

일본에 진정한 배상요구로
자주국가로 거듭나자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독도 문제를 비롯한 최근 일본과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배상과 보상은 다르다. 보상은 적법한 법 집행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주는 경우이다. 한편, 배상은 불법적이거나 징벌적인 피해보전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에 요구해야 할 것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에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 '배상'이라는 해법을 천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일본에게 의지하는 속국이 아닌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짓고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발언에 또 다른 정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한국 대통령 최초로 일본에 있어서 당당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준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당당한 자주국가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어야 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역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걸어온 길이기 이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였다. 이번 계기로 일본에 대한 배상요구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김은미(사과대 신방3)

금주의 식단

	월(3/14)	화(3/15)	수(3/16)	목(3/17)	금(3/18)
동국관	부대찌개 (1800) 버섯불고기 (2000) 리조기 (2000)	꼬치어묵우동 (1800) 제육볶음 (2000) 짜개백반 (2000)	갈비탕 (2000) 카레라이스 (1800) 산채비빔밥 (2000)	참치우거지탕 (1800) 떡갈비찜 (2000) 푸꾸미콩나물볶음 (2000)	양지탕 (1800) 오징어김치볶음밥 (2000) 스파게티&오뎬볶음 (2000)
상록원	쇠고기국밥 (1800) 제육콩나물볶음 (2000) 닭꼬치구이 (2000)	설렁탕 (1800) 닭도리탕 (2000) 간통육 (2000)	쇠고기우육김치 (2000) 모듬볶음밥 (1800) 두부김치 (2000)	육개장 (1800) 돈육계란찜조림 (2000) 오징어비빔밥 (2000)	돈갈비김치찌개 (2000) 떡볶이백반 (1800) 족발 (2000)
교직원	카레라이스 (2000) 피자돈가스 (2500)	제육덮밥 (2500) 비후가스 (2500)	팜프덮밥 (2500) 돈가스 (2500)	불고기덮밥 (2500) 치킨가스 (2500)	하이라이스 (2000) 생선가스 (2500)
원향	복어계란국 (2000) 불낙찌개 (2500) 양파비빔밥 (5000) 제육볶음덮밥 (2500) 순두부찌개떡볶이 (2900)	카레수제돈가스 (2900) 양송이찰판볶음 (2900) 쇠고기미역국 (2000) 불낙찌개 (2500) 제육볶음덮밥 (2500)	갈비탕떡볶이 (2900) 푸꾸미찰판볶음밥 (2900) 냉이민장국 (2000) 김치볶음밥 (2500) 동백김치탕 (2500)	탕수육&장미밥 (2900) 알짜개떡볶이 (2900) 쇠고기우육 (2000) 불고기비빔밥 (2500) 돈육시대떡볶 (2500)	새우가스찜식 (2900) 후랑크찰판볶음밥 (2900) 떡만두국 (2500) 돈육김치찌개 (2500)
교직원	냉이민장찌개 (3500) 안동찜닭 (3500) 두부김치백반 (3500)	두부전골 (3500) 산채비빔밥 (3500) 생선양념구이 (3500)	해초비빔밥 (3500) 원향정식 (3500) 콩나물비빔떡볶이 (3500)	두부찜갈비 (3500) 버섯육개장떡볶이 (3500) 찰판제육두부찌개 (3500)	청정연두부부부부 (3500) 영양비빔떡볶이 (3500) 떡볶육 (3500)

달하나 천강에

자신만의 정체성 찾아야



전 준현
정보산업대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

‘인생 뭐 있어? 한방에 배터지게 사랑 받고 멋 있게 사는 거지!’

얼마 전 극장에서 상영된 피터허릿 감독의 ‘가필드’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고양이가 세상 편히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의 신조처럼 내뱉은 ‘인생 뭐 있어? 한방에 배터지게 사랑 받고 멋 있게 사는 거지!’ 라는 대사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는 것 같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견디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동시에 고뇌와 번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나와 나의 주변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순탄한 인생을 살고 싶

어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 역전을 위한 한 방(?)’을 찾으려고 하고 우연과 기연을 바라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인터넷을 생활의 일부 분으로 사는 우리들은 인생, 삶의 모든 것이 쉬워 보이는 착각에 빠져들기가 쉽다. 즉, 인터넷 만 있으면 항상 즐거우며, ‘나’만의 사이버(cyber) 공간에서는 언제나 ‘나’가 중심이고 ‘나’를 위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는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을 인터넷에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대학 입학 후 ‘꽃피고 새가 우는 호(好) 시절’이 지난 대학 3학년이 되면 졸업 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생활’과 ‘삶’이라는 ‘밥=돈’을 해결을 위한 자신의 진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모든 학생이 전문 전공이 있으나 경쟁과 사회 상황 등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에 ‘경쟁이 불안하여...’라고 보도가 되든가 선배가 취업 때문에 고민하게 되면 남의 일이 아니고 곧 자신에게 닥칠 문제로 생각하여 이러한 불안은 더욱 증폭이 된다. 결국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것 같고, 하여 전공 외에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동분

서주하고 해외 연수를 하며 최소한 ‘남이 하는 것은 나도 한다’라는 새로운 지점을 만들어 스스로 매진하게 된다. 결국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동국대학교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막연한 것 같지만 먼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우주와 같은 아름다운 자아를 찾고 조급함과 불안함이 자신이 만들어 낸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갖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을 할까?’ 보다는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바란다. 이것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듯한 기분이며 이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목표가 보이면 달성하도록 하나씩 벽돌을 쌓듯이 정성을 다하여 즐겁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

끝으로 ‘삶’은 순간과 같지만 아주 머나먼 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기다림의 미덕과 여유로운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 속에는 ‘나의 모든 일은 잘될 거야!’라는 자신감을 갖기를 바란다.



북극점에서 날아 온 소식

영하 50도 혹한 속 계속되는 강행군



박영석 동문은 본교 주최로 일년 앞둔 건학 100주년을 빛내기 위해 북극점 등정을 시작했다. 이에 본사에서 동이닷컴에 협조를 구해 최근의 근황을 전하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공기원을 부탁드립니다.

1991년 본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박영석 동문은 1993년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 2001년 히말라야 8천미터 급 14개 고봉 세계 최단 기간 등정, 2002년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 2004년 남극점 정복에 이어 이번 북극점 원정에 성공하면 지구 3극점(남북극, 에베레스트)을 모두 밟는 ‘신악그랜드슬렘’을 세계 최초로 달성하게 된다.

3.9 등정시작 / 3.15 북위 84도 / 3.25 북위 85도 / 4.3 북위 86도 / 4.11 북위 87도 / 4.19 북위 88도 / 4.27 북위 89도 / 5.7 북위 90도 - 북극점 (North Pole)
[북극점 원정대 스타트]2000km 첫발 내딛다

◇ 혹한의 얼음 바다에서 인류의 새 신화를 열어낼 대장정이 시작됐다. 박영석 원정대는 9일 오전 1시 30분 캐나다 최북단 워드헌트에서 도보 대장정에 들어갔다. 현지 날씨는 섭씨 영하 45도인데 초속 10m의 거센 북동풍까지 불

어 체감온도는 영하 55도. 대원들은 100kg이 넘는 썰매를 직접 끌며 북극을 향해 60일 동안 걸어야 한다. 북극까지의 직선거리는 775km이지만 실제로 걸어야 하는 거리는 2천km가 넘는다. 최대 난코스에는 초반 200km가 넘게 널려 있는 난빙대(얼음산) 지역. 리드(얼음이 갈라져 드러난 바다)는 썰매를 보트 삼아 목숨 걸고 건너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를 덮은 얼음이 얇아진 탓에 리드가 늘어나 도보로 탐험 가능한 기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섭씨 영하 50도에 초속 14m 이상의 블리자드가 항상 부는 가혹한 북극해. 해뜨기 2시간 전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해뜨기가 무섭게 걷기 시작해 해질 시간에 텐트를 치고 식사를 한 뒤 잠자리에 눕는다. 한겨울과 여름 각각 4개월씩 밤과 낮만 계속되는 북극지방.

현재 북인 워드헌트에선 오전 7시 29분 해가 떠서 오후 3시 11분에 해가 떨어져 일조시간은 겨우 7시간 40분. 초반 펼쳐진 난빙대와 짧은 운행 시간이 겹쳐 하루 전진 거리가 10km를 넘기 힘들다. 하지만 계속 하루에 30분 꼴로 해가 길어져 난빙대를 벗어나는 원정을 시작한 지 20일 이후부터는 일조시간이 18시간 가까이 돼 한밤중 운행도 가능해 수 십km를 전진할 수 있다.

메아리

자아비판 상실

▲여의도에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갔다. 행정중심도시 건설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내분이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대표는 최근 전당대회에서 공개적으로 대표 사퇴 요구를 받는 등 취임이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여기저기서 박근혜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몇몇 당원들은 지금껏 무엇을 했느냐고 박 대표를 향해 샅대질을 한다.

그렇다. 박근혜 대표가 마땅히 무엇을 했다고 내세울만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녀는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동악에도 한바탕 폭풍이 불었다. 다름 아닌 수강신청 폭풍이다. 1차 수강신청 때 실패한 학생들은 정정기간에 잡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혹시 늦잠을 자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클릭 속도가 조금 느려 실패한 일부 학생들은 학교를 비판하기 시작한다.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는데 듣고 싶은 수업도 못듣는 것이 말이 되냐고 샅대질을 한다.

그렇다. 학교가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묻고 싶다. 지난 2월 실시된 수강신청 사전조사에 참여한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지 말이다. 혹시 수강신청 사전조사가 무엇인지는 아는 지 말이다.

▲행정중심도시 건설특별법을 반대한 일부 한나라당 당원들은 이번에도 정치인들만의 노후유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바로 ‘버팅기’이다. 회의장 문에 못질을 하고 벽에 걸린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에는 청테이프를 붙였다. 위원장의 마이크는 아예 전깃줄을 끊어버렸다. 이쯤 되면 의견행사가 아니라 오기 부리기로 보인다.

▲일부 물지각한 동악의 학생들도 뒤지지 않는다. 다음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여유가 없는 그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학교에 전화해 무조건 넣어달라고 연성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담당 교수에게 찾아가 수업을 들어도 좋다는 확인도장을 받아오는 학생까지 스타일도 각양각색이다. 교육의 질 운운 할 때는 언제나 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는 컴퓨터 관련 수업에 기어코 넣어 달라는 심보는 무엇인지 참으로 궁급하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학생을 위한 등록금 정보 부족해

실질적인 개강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 한 주일이었다. 특히 새내기들에게 지난 호는 대학에서 처음 접해왔을 동악의 소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호는 새내기들에게 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사들이 많았다. 특히 재학생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다룬 것은 재학생과 새내기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였다. 그리고 동문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사는 재학생으로서 동국인으로서의 연대의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이는 새내기들에게도 학교 선배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기 초를 맞이해 신입생을 위한 정보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 등록금마저도 버거웠을 새내기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비단 신입생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이 올해에도 올랐는데 총학생회의 부재로 이러한 사실이 불거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럴 때에 신문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총학생회의 부재를 같이 이야기 한다면 학생회의 구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또한 장학금 제도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재정 형편이 어렵거나 하는 이유로 평범한 대학생생활을 즐길 수 없는 학생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한 어려움을 겹겹으로 드러내어 고민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의 발판이라는 대학에서 학업 이외의 다른 고민으로 대학생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 여러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학내에서의 문제를 찾아내어 고발하고 이야기되도록 하는 역할을 동대신문에서 하길 바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대신문이 무궁한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

전지애(사범대 교육4)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인연

정채봉

나는 없어져도 좋다

너는 행복하여라

없어진 것도 아닌

행복한 것도 아닌

너와 나는 다시 약속한다

나는 없어져도 좋다

너는 행복하여라

자신의 이름에 ‘채송화 채, 봉송아 봉’이라고 토를 달던 사람. 마음만큼이나 눈이 맑아서, 마주하면 또렷한 ‘눈부처’가 보이던 사람. 서늘한 생각의 샘물을 길어 이름다운 이야기 꽃밭을 가꾸던 사람. 어른들에게 어여쁜 생각의 꽃을 나눠주어 가슴에 달게 하고, 아이들에게 꿈의 씨앗을 주어 마음 밭에 키우게 하던 사람.

정채봉(1946~2001). 세상이 동화작가로만 기억하는 그를 나는 시인이라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다. 시집 한권(‘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현대문학북스, 2000)을 남기고 갔다는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타고난 시심(詩心)’이라고 밖에는 달리 이름을 붙일 길 없는 그 그 옥한 마음의 종자(種子)를 아는 때문이다.

한번은 그가 들떠서 쓴 시집이 내로컬로버를 발견했던 모양이다. 딸까 망설이다가 이내 포기하고 그냥 돌아섰단다. 그 이야기를 시로 쓴 것이 있는데, 이렇게 끝난다. ‘차마 못 떠났구나/이 들녘에서 풀잎 하나라도 축을 낸다면/들의 수평이 기울어질 것이므로’(‘들녘’ 중에서).

세상에! 그런 사람을 빼놓으면 누가 시인이라

윤제립
시인·서울예대 교수

이주의 학술 키워드

쌀

'이주의 학술 키워드'는 최근 시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키워드를 선정해 이를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와 결합시켜 다양하게 해석해 보는 코너입니다. 키워드 선정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동대신문 홈페이지(www.dgupress.com)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식물의 출현은 재배와 사냥에 의존해 먹거리를 확보하던 불안정하고 비지속적인 태초의 삶으로부터 정착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이집트 문명의 밀·보리, 마야 문명에서의 옥수수, 잉카 문명에서의 감자, 인도·중국 문명에서의 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됐다.

화분과 식물에 속하는 벼는 식물체 자체와 그것의 성숙된 열매, 즉 벼의 알맹이(과실)를 가리



중앙도서관 신착도서



그. 래. 도. :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 켄트 케이스 지음 / 문체원 옮김. - 더난출판, 2004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미쳤다.' 이 책 프롤로그의 첫마디이다. 대기오염, 생태계의 파괴, 인구 증가, 핵탄두, 교육의 부재, 청소년 범죄, 빈부격차, 오랫동안 우리가 지녀왔던 가치관의 혼돈,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압몰하게 하는 현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어나는 것 같더라도 언제나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 가지 역설의 진리를. △사랑하라 △작한 일을 하라 1 △성공하라 △작한 일을 하라 2 △정직하고 솔직하라 △크게 생각하라 △약자를 위해 분투하라 △공들여 탐을 쌓아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짓 먹던 힘까지 다해 헌신하라

인문과학실 소장. (170.44 K28aon)



(윤관준의 사진 이야기) 잘 찍은 사진 한 장 / 윤관준 지음 - 동진닷컴, 2003.

어느 시기부터인가 입학식과 졸업식 하면 떠오르는 사진사 아저씨들은 정물화 속 풍경처럼 차차 하던 자리를 슬며시 내놓아할 시기와 버렸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카메라를 휴대하고 있는 탓이다.

바바라 런던의 '사진'이라는 보편적인 사진 개론서부터 시작해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기술을 담은 책들이 넘쳐나지만 그 마음가짐에 대해 옮긴 개론서가 드문 와중에, 윤관준의 '잘 찍은 사진 한 장'은 카메라 다루는 기교와 사진 잘 찍는 방법을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인문과학실 소장. (770.2 윤16x) 자료제공=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반만 년 전부터 우리의 식량

키는 말로 '나라', '벼'라고도 한다. 벼의 열매는 겉껍질인 왕겨와 속 알맹이인 현미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쌀은 벼알의 겉껍질인 왕겨와 현미의 겨층을 제거(도정, milling)한 흰 쌀을 말하는데 '백미'라고도 부른다.

벼의 기원과 종류

벼 속(屬, genus)에는 20~30종(種, species)이 존재하며 그 중 재배화된 것은 단 두 종이다. 하나는 아시아 재배종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재배되는 사티바종(Oryza sativa)이고,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재배종으로 서아프리카 일부에서 밭벼로 재배되는 글라베리마종(Oryza glaberrima)이다.

우리가 재배하는 벼는 자연 환경적 요인과 인간의 인공적인 노력에 의해 야생벼에서 재배벼로 다양한 유전적인 변이를 거쳐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유력한 전설은 인도 북동부지역의 아삼에서 미얀마 및 라오스의 북부를 거쳐 중국의 원난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벼의 기원지로 보는 것이다.

아삼-원난은 지형적으로 동남아시아 벼농사 지대를 흐르는 많은 강의 기원지이기도 하다. 당시에 이동수단으로 용이한 수로(양쯔강)를 따라 아시아 재배벼의 조상(Oryza sativa)이 기원지로부터 중국의 화중으로 전해 졌고,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20년대 일본인에 의해 발견된 김해 조개무

지에서 1세기 경의 탄화벼를 근거로 남방에서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유입되었다는 남방유입설이 주장됐다. 그러나 1976년 경기도 여주군 환암리 청동기 시대의 집터에서 곡식날알이 발견됐다. 이것은 일본보다 2~3세기 앞선 2천400~2천500년 전에 한강유역에서 벼가 재배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최근 고고학적 성과는 1991년 6월에 일산 신도시 건설시에 발굴된 가와지 유적에서 외형이 잘 보존된 볍씨였다. 이것은 벼 겉껍질(왕겨)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 4천500~5천년 전의 것으로 알려졌다.

벼가 생육하기에 적합한 조건은 1천200mm 이상의 강수량과 3천℃ 이상의 열적산량이다. 온대성 계절풍(monsoon) 기후대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벼의 생육조건에 적합하다.

쌀의 종류와 특성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쌀의 품종은 인디카(Indica)종과 자포니카(Japonica)종으로 나뉜다. 자포니카종은 한국, 일본, 중국의 북부와 중부, 브라질, 에스파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데 입자가 짧고 밥을 지었을 때 점성이 있다. 반면 인디카종은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를 비롯해 인도, 미국 남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자포니카종에 비해 쌀알이 길고 점성이 없다.

이에 따라 지역별 조리법도 서로 다르게 발전했다. 점성이 적은 인디카종을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기름에 볶아 고기, 채소, 향신료 등을 곁들여 먹고, 점성이 있는 자포니카종 재배 지역은 순수하게 밥을 지어 독립된 반찬과 먹는 방법으로 식생활이 발전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와 같이한 쌀의 서로 다른 품질은 재배지역의 조건과 그리고 지역사람들의 입맛에 좌우 되었다고 생각된다.

쌀농사가 주는 공익성은 생태적으로 논의 저수 및 홍수 조절능력, 토양의 유실방지, 수질정화, 대기정화 등이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식량의 안전보장과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런 쌀이 세계화의 흐름에



벼꽃(위)과 재배벼의 기원지 및 전파과정(아래).

관상용이 아닌 재배식물의 꽃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수정된 벼 꽃 하나는 쌀 한 톨을 만들어낸다. 꽃에는 6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들어있으며 재꽃가루받이(자기수분, self-pollination)를 한다. 날씨가 맑고 온도가 적당한 오전 9시부터 개화가 시작되어 11시를 중심으로 가장 만발하며 오후 1시가 되면 끝이 난다. 벼의 일생 중 우리가 벼꽃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한 개체당 1~2.5시간 정도 뿐이다. 이것도 좋은 조건에서야 가능하며 비가 오면 개화하지 않고 수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재대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모양만 이삭의 모습을 한 쪽집이가 되고 만다.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단적으로 25%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도는 점점 급감하는 세계 쌀 재고 전량과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대로 세계화의 흐름에 경제적인 논리로 쌀을 포기 할 때 주식인 쌀을 수입하는 수입국으로서 우리의 앞날을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볼아야 할 문제다.

박윤석 객원기자(농학 석사과정) simon6909@dongguk.edu

내가 읽은 책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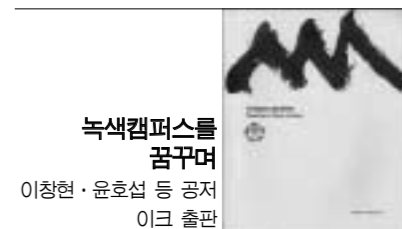
최일우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과장

캠퍼스 환경보호 운동의 지침서

홍기삼 총장은 지난 총장취임사에서 생태학적 사유가 전 지구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문화는 중요한 자산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대학을 불교생태학의 본산지로 육성해 전통과 현대의 결합이라는 우리 대학의 특성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표방했다. 또한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불교문화연구원 주축로 '불교생태학의 오늘과 내일', '희망의 생태학, 길도 숲도 필요하다' 등 학술세미나도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활발한 학술적 연구와 논의에 비해 지금 우리 대학 구성원의 모습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아직도 축제기간이면 캠퍼스에 먹고 버려 버려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와 일회용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급연 건물 내에서 버섯이 담배를 피우고, 주차난 해소와 청정 교육환경을 위해 추진한 주차장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캠퍼스는 넘쳐나는 자동차로 항상 복잡하다.



'녹색캠퍼스를 꿈꾸며'라는 책은 불교생태학이 우리가 생활하는 대학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론서가 아닌 실습서 같은 책이다. 여기에서 녹색캠퍼스(green campus)는 단순히 나무나 꽃을 심어 캠퍼스를 푸르게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교수, 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환경 친화적인 의식을 갖고 학교와 사회생활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에는 북한산을 뒤로 한 국민대학교 구성원들이 한 해 동안 캠퍼스에서 실천해왔던 녹색캠퍼스의 꿈에 대한 기획과 실천의 작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들은 '차 없는 캠퍼스', '숲과 함께하는 캠퍼스', '아름다운 가계와 함께하는 캠퍼스', '녹색전사단과 함께하는 캠퍼스' 등의 부문 운동을 수행했다.

지난 시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당위로 받아들여왔던 21세기엔 이 자비의 생태윤리가 시대적 가치로 받아들여져지고 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철거되고 청계천이 복원되며, 서울 시청 앞에 푸른 잔디가 깔렸다. 대학에선 저녁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캠퍼스를 에워싼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나무나 꽃을 심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 많은 대학들이 이전 보행 공간 및 녹지 확보를 위해 '차 없는 캠퍼스'를 추진하며 지하캠퍼스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계획 중이다.

이 책에서 국민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여 준 구체적인 실천사례들은 더욱이 환경적으로 비소하게 남산과 더불어 생활하는 우리 대학에게 제시하고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더불어 대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게임이론을 통해 알아본 정부의 쌀 협상

몇 달전 1년간 끌어온 쌀 개방 협상이 마무리됐다. 협상의 결론은 국내 쌀 시장 완전개방을 다시 10년간 늦추는 대신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을 매년 2만 톤씩 늘려 10년 뒤인 2014년에는 올해 수입량(20만 5천톤)의 2배인 41만 톤의 외국쌀을 사들이도록 한 것이다.

또한 올해에는 수입쌀의 10%(2만 2천500톤)를 할인임이나 동네 소매점 등에서 포장한 상태로 팔고, 2010년까지 그 비율을 30%로 높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쌀 협상 카드

우리가 얻어낸 상기의 협상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지 게임이론을 통해 검증해보자. 먼저 게임이론이란 경쟁 주체가 상대방의 대처행동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즉,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기 자신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도록 행동하기 위한 원칙이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카드를 분석해보면 첫째, 쌀에 대한 관세화이다. 쌀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이다. 높은 관세를 매겨 수입한 쌀을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사먹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작년기준으로 5%의 낮은 관세를 매겨 중국·미국 등에서 국내 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물량을 들여오지만 모두 가공용이다.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산의 3~4분의 1에 불과한 외국쌀을 국내의 가격차이보다 약간 밑도는 수준의 관세를 매겨 수입하게 된다. 쌀 시장의 문호는 개방하되, 외국산에 비해 훨씬 비싼 국내 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관세화의 단점은 쌀 시장 개방 초기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매년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입 쌀 값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이다. 시장개방을 다시 미루는 대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수입쌀의 규모는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10년간 국내소비량의 1~4%를 수입해야 하는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10년간 누린 혜택을 고스란히 연장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관세화 유예의 단점은 국내 쌀 생산량이나 재고가 증가해도 정해진 물량을 무조건 수입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다.

마지막 카드는 협상의 결렬이다. 이 경우 무조건 다음연도부터 쌀시장을 자동 개방해야 하므로 논의의 실익은 없다.

왜 관세화 유예안이었나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여금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게 만든 소지한 카드를 분석해보면 먼저 쌀에 대한 관세화는 WTO의 기본 취지가 시장개방인데다 우리나라는 UR협상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라는 특례조치를 받은 조건으로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을 약속했지만 지난10년 동안 추곡수매가를 26%나 올리는 등 WTO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를 취해왔다. 즉, 이는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강화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쌀의 관세가 앞으로 얼마나 낮아질지는 도하 개발어젠더 농업협상에서 결정하게 돼 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해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합의된 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쌀을 관세화 할 경우 협상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쌀을 얼마나 수출할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관세화시 예상되는 수입량 전망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쌀을 관세화한다면 우리나라는 쌀 시장의 개방정도를 놓고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은 게임이론에 위배되므로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 카드는 카드인 관세화 유예라는 카드는 먼저 도하개발어젠더 협상에서 관세감축 폭이 예상외로 작게 결정될 경우 일본처럼 중간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될 것이고, 관세감축 폭이 커진다면 이미 결정된 관세화 유예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이와 같이 언제나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는 협상대상국에 비해 유리한 입지에 서게 한다.

또한, 수입쌀의 관리가 보다 용이해 쌀 시장 개방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고 쌀 산업을 연착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출국들은 관세화 유예 조건의 하나로 수입쌀의 30%를 자유롭게 시판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화를 하면 수입쌀의 5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시판될 것이므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더 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협상하는 게임이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분석해보면 정부가 선택한 관세화 유예안이 최선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10년 뒤를 대비해야

이제 쌀 협상은 끝났다. 모두 협상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일을 논의해야 한다.

농민단체도 농가에 실익이 있는 쟁점에 역량을 집중하고 또한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수입쌀과 우리쌀이 나란히 시장에 나왔을 때 소비자가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우리 쌀 농업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 쌀 가격이 매년 소폭 하락해 수급균형이 이뤄지고 국제가격과의 차이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관세화 할 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최한 객원기자(경찰학 석사과정) choikwan@dongguk.edu

언론재단 신임 이사장에 선임된 정남기(경제 68졸) 동문을 만나

“한 길만을 위해 매진한 것이 지금 위치에 오게 한 원동력”

지난 1월 14일자 신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학교 정남기 동문을 인터뷰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 간 정치적으로나 언론계통에 있어 크게 이름을 날리던 인사들로 내정됐던 언론재단 이사장직에 그 아말로 '뉴 페이스'인 편집기자 출신 우리학교 정남기 동문이 선임됐기 때문이다.

정 동문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언론인의 한길만을 걸어온 것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그날도 지방 언론사 순회를 위해 각 지역을 돌고 막 올라와 또 다른 기획 회의를 위해 여



“올바른 언론 환경 조성 위해 끊임없이 연구할 것”

념 없는 그를 만나 그동안의 대학생활과 기자활동,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대학 때부터 언론인으로서의 꿈을 키워왔는지.
=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일간지 기자들은 쳐우나 환경 등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신문 기자 외에 다른 직업에 대해 한번도 꿈꿔 본 적이 없으며 오로지 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학 4년을 보냈다. 졸업반 시절에 신문사 기자 시험에서 수차례 떨어졌을 때에는 주위에서 일반 회사 시험을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도 받았지만, 그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끈기와 신념 때문인지 몇 차례 신문사 이동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언론 관련 일에 종사해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

- 80년대 기자 시절, 강제 해직 된 경험이 있다는데.
= 80년대에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올바른 기자가 탄압받고 그렇지 않은 기자들이 대우받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군사독재적인 언론 탄압에 반대하고 언론 자유를 외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에서 정부의 신문 검열을 거부, 신문제작을 중단하는 총파업을 주도했다. 이 와중에 광주사태가 발생했고, 정부의 탄압이 더욱 거세지면서 협회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던 기자들을 대거 강제해직시켰다. 나 역시도 주동자로 그 중에 속하게 됐다. 그 후 2년 동안 복직하지 못하다가 기자직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88년 경향신문사에 복직하게 됐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의

언론 환경이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 언론재단 이사장직을 맡게 된 소감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 현재 언론재단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언론매체를 지원하고 후원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와 교육 등 총체적인 언론 관련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부담스럽고 집이 무겁다.
갑수록 전자 매체들로 인해 언론 환경이 급변해가며 이에 따라 무분별한 언론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매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단 식구들과 함께 끊임없이 연구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과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언론재단이 기자들을 위한 물질을 지원만을 하는 단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구 분야를 더욱 활성화 해 재단의 위상을 새로 정립해 나갈 것이다.

-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자신의 꿈에 대해 끊임없는 집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 당시에 자신의 꿈을 많이 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힘들지라도 자신의 꿈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언젠가는 꼭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미리 정한 꿈이나 직업을 포기하기 보다는 더욱 야심 차게 밀고 나가



는 끈기가 필요하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 전체 언론매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언론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지속해 온 동학농민운동 기념사업 역시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이다. 앞으로는 큰 꿈이나 계획은 없다. 그저 선진적인 언론문화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면 공직에서 물러나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생각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인물동정

동방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에

정상욱 동문 취임



우리대학 행정학과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상욱 동문(행정 72졸)이 동방대학원 대학교 초대 총장에 선임됐다. 오늘(14일) 동방대학원대학교 강당에서 입학식 및 초대총장 취임식이 열렸다.

문호치 동문 국제팬클럽 이사장에



시인 문호치(국문 66졸) 동문이 지난달 25일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제32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문 동문은 이날 “앞으로 계간 ‘팬문학’지를 월간화하여 회원들의 발표 지면을 확대하고 국제문학 교류관을 개설해 해외 유명 작가의 한국관련 창작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정희 시인, 본교 석좌교수에



시인 문정희 동문(국문 70졸)이 지난 6일 우리학교 문예창작학과 석좌교수에 위촉됐다. 따라서 문 동문은 이번 학기부터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시 창작론을 강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에게 중진 시인의 원숙한 세계관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문 시인을 위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수동정

△김대영(산림자원학)=내일(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제 55회 일본목재학회대회 참가 및 발표를 위해 출국

경주캠 의대 이완 박사팀

당뇨병 주원인 밝혀내



당뇨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미토콘드리아의 DNA 감소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학교 의대 생화학교실 이완 박사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DNA의 양을 특정 화학물질로 감소시키면 포도당 흡수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생화학 분야 국제 학술지 3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동국건학 100주년을 함께 하는 사람들

I 구본훈(국교3) 사범대 학생회장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이 1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면 이를 가장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구성원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 재학생들이다. 평생 자신의 이름 한 편에 함께 할 모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을 보면 시대의 탓인지, 모교의 역사나 현재 상황 등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본훈(국교3)사범대 학생회장을 만나 이야기해 보았다.

- 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 다른 대학들에 비해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100주년이라는 역사를 그 이름만 내세운다고 해서 학교가 돋보이고 발전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교육, 연구 등 학교 전반적인 부분에서 내실을 쌓은 후, 그 위에 100주년이라는 역사가 더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 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비롯해 전 주체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해 더욱 매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 학교 구성원 간의 화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자신의 모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문체이지만, 학생들을 대화의 주체가 아닌 단순히 제자의 개념으로만 보는 교수, 직원들의 사고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이 왜 등록금 협상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선출한 대표만큼 전체 학생들을 대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대화와 타협의 공동주체로서 학교의 사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100주년 사업이나 행사 등을 기획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속적으로 학생회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지난해에 100주년 사업회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했다는 정보 역시 들지 못했다. 따라서 학생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학생대표들이 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일반 학생들의 참여까지 이끌어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나 콘테스트 등을 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학생들 역시 대화의 주체로 참여해야”

동국대학교 출판부 신간 도서 안내

http://home.dgu.ac.kr/~book 전화 : 02) 2260-3483~4 팩스 : 02) 2268-7851

불교생태학총서① 불교생태철학



김종욱 저/신국판/25,000원
‘연기-공-자비’라는 불교사상의 기본 교리를 ‘상호의존성-비실체성-상호존중성’이라는 생태학적 개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불교생태철학의 기초를 수립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부록에는 지금까지의 국내외 불교생태학의 연구 성과를 목록을 총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현대불교학연구사



J.W.드 용 저/강종원 편역/20,000원
고전어와 현대어를 포괄하여 10개국어 이상의 문헌이 독해 가능했던 불교문헌학의 대가 드 용이 로마시대 이래 서양에서 이어져 온 불교 연구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서술한 이 책은 전문가들에게도 불교학의 모든 분야에 걸친 중요한 연구제자들을 조감해줄 수 있는 이 분야 최고의 연구사이다.

1분 앞으면 1분 부처



니시지마 와후 저/유키미카 옮김/7,000원
[불교문답]과 [좌선법]을 한글로 번역하여 한 권으로 묶은 것으로 문답으로 배우는 불교, 그림으로 익히는 좌선법이다.

태산심법(胎産心法)



영순새 저/김동일·이태근 옮김/22,000원
의사의 과실로 아내는 잃은 슬픔을 의학연구로 극복한 유의(備醫) 영순새(閔純齋)에 의해 1730년에 지어진 책으로, 이 책에 담긴 이론과 처방은 현대의 임신관리, 태교, 분만, 산후관리 등의 부문에서도 변함없이 실제적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어 한의과대학 학생과 임상 한의사는 물론 여성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참고 가치가 있다.

역주 농암잡지(譯註 農巖雜識)



김창협 저/오용원 옮김/20,000원
농암(農巖 김창협: 1651~1807)이 28세(1678)에서 57세(1707) 사이에 저술한 잡록류(雜錄類)로서, [내편 1(內篇一)] [내편 2(內篇二)] [내편 3(內篇三)] [외편(外篇)] 등 모두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생물학



김보환 저/신국판/14,000원
서구에서 이루어진 많은 범죄생물학의 이론적 연구경향들을 소개하고 유전적, 생화학적 요소들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영상의 발견



마츠모토 토시오 저/유양근 옮김/12,000원
일본의 영상작가인 마츠모토 토시오(松本俊夫)가 펴낸 첫 평론집으로 영화에 대한 관점을 장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적인 문제로 다루면서 다큐멘터리와 초현실주의의 결합이라는 새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시장사



조병찬 저/신국판/37,000원
저자의 기존 저서들을 확대, 증보하여 상고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장사의 변천과정을 다루었고, 해방 후 농수산물시장과 생필품시장 부분은 1990년 이후의 격변하는 최근의 시장정세를 연구한 것이다.

국어작문



교양교재 편찬위원회 편/10,000원
대학생으로서 알아두면 유익한 글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말과 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바른 문장 쓰기, 교양인의 글쓰기, 보고서 및 논문작성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습문제를 수록해 다시 한번 해설해 준다.

동국사랑 수요일음악회

감미로운 캠퍼스와 만나세요

음악대학이 없는 우리 학교에서 라이브 클래식 음악회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클래식 음악 동아리들의 공연이 있을 때에만 드물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우리학교 분위기를 다소 전환시킬 수 있는 클래식 음악회가 이번 학기 내내 열려 눈길을 끈다.



첼리스트 홍지영,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등 미국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음악대학 출신들이 참여하는 '동국사랑 수요일음악회'가 오는 16일을 시작으로 6월까지 매달 중순 수요일 낮 12시에 중앙도서관 지하 2층에서 열린다.

음악회는 △3월 16일=로터스 현악4중주(제1바이올린=정재훈, 제2바이올린=윤소연, 비올라=유진박, 첼로=홍지영) △4월 13일=바이올린 독주(윤소연) △5월 18일=피아노 트리오 △6월 15일=첼로 독주(홍지영)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중앙당 등 대형공연장이 아닌 중앙도서관에서 열려 이색적이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가운데가 트여있는 중앙도서관의 건축구조를 이용, 지하 2층 가운데 홀에 무대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음악회를 준비한 학생복지실의 류변성 과장은 "학생들의 출입이 많은 도서관 공연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

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 음악회를 시작으로 전시실과 AV실, 멀티미디어실을 갖춘 도서관이 점차 복합문화정보센터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번 약 40분간 진행될 이번 음악회는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짧고 경쾌한 곡들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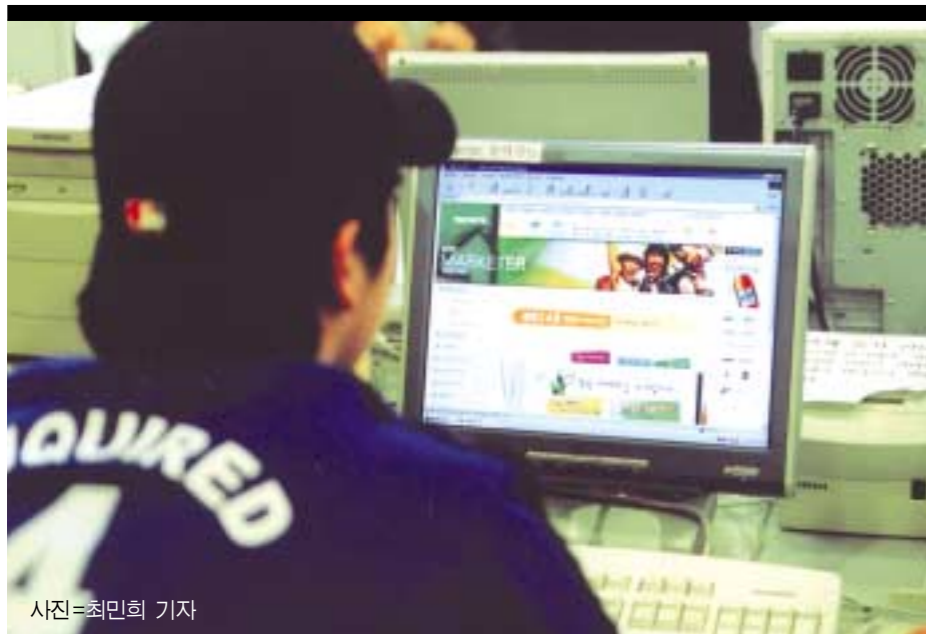
첫날 프로그램은 △하이든의 현악4중주 '중달새' 1악장 △베토벤의 현악4중주 '라주모프스키' 제3번 4악장 △드보르자의 현악4중주 '아메리카' 4악장 △스카 쇼플린의 레그 타이밍 댄스 △브람스의 헝가리무곡 제5번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홍지영(첼리스트) 씨는 "테크니컬을 가미한 신선하고 재미있는 곡들이 많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5시 중앙당에서는 신입생 환영 및 개강맞이 연주회가 열린다. 유진박과 러시아안 밴드 등이 참여하는 이날 공연은 클래식과 재즈가 결합한 크로스 오버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학점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각박해진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하게 열리는 학내 클래식 음악 행사를 활용해 내면을 가다듬어 보자.

문화캠페인 동국인! 문화인!



사진=최민희 기자
중도 PC방!! 중앙도서관 자료검색 시스템이 인터넷 서비스로 바뀐 이후 도서관 전용 컴퓨터에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장소=중앙도서관

건축과 자연이 '한 몸'

연재기획 환경문화를 말한다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요즘, 대학가에도 환경문화가 조성돼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대학인들이 환경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이를 개선해 나가는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이에 본사 문화부에서는 대학생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분야를 살펴보는 연재 기획을 준비했다.

- 편집자
- ① 봉사부문
 - ② 건축부문
 - ③ 미술부문
 - ④ 음악부문
 - ⑤ 생태건축
 - ⑥ 르포

먼 길 재촉하여 산사에 들면, 절집이 주는 종교적 안식 뿐만 아니라 절집 공간과 주변의 자연 환경이 주는 위안으로 하여 그 의미를 더욱 더해준다. 풍광 좋은 오랜 자리, 품 너른 넉넉한 배치, 울방울방 질서를 가지고 자리해 있는 건축물들, 다문다문 이마 맞대고 어깨를 내어주고 있는 사이좋은 오누이 같은 지붕과 처마 선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이자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운 풍경으로 일체된다.

그러하여 자연이 인간에게 위안이 되고 인간이 자연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생태주의의 시작이라 여겨진다.

생태건축은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생태학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합리화와 경제성의 가치상으로 빛이진 확일화, 비인간화, 생태환경의 파괴의 모순을 초래한 근대이후의 건축양상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건축적 대안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영월의 동강 댐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동안에 해당 지자체는 서강에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해 참여한 대립의 장은 장기화될 조짐으로 옮겨가고 있다. 여

기에서 '댐과 폐기물 매립장'이라는 혐오시설이 태생적으로 동거부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현재 문명과 사회 구조,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의 대립함에 대한 사유를 시작해보자.

데카르트, 뉴턴 등 17세기 자연과학자와 사상가들에 의해 확립된 서구의 자연 정복을 통한 자연 지배관은 세계에 대한 기계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근대 자연관의 연장선 상에 영월의 동강과 서강의 운명이 놓여져 있듯이 우리의 주거환경의 미래도 예견케 한다.

그것은 인간에 의해 자연지배와 물질의 무한한 이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이론으로서 자본주의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키워왔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마치 전자군단처럼 무지막지하게 밀어부쳐온 이 자연지배관 위에서 진행된 근대화·산업화 과정은 일련 인류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다는 식의 표피적 성과는 거두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류의 환경을 파괴화하면서 전 지구적 생태위기를 초래했다.

지난 달 16일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부처와 산업체 전반에서 대체에너지 수급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지구와 인간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언 발에 오줌누기' 격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

생태주의는 무엇보다 지구 생태계가 부분과 전체, 개체와 환경이 서로 유기적 통일체라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우리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생태건축은 건축이 자연을 배려하고,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문명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하며, 자연과 건축이 서로의 위안일 수 있는 새로운 관계 맺기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 봄에도 다시 꽃은 피고 아름다운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우리는 맑은 공기와 더불어 해맑은 아이들 웃음과 더불어 잠자리에서 깨어 날 수 있을까? ... 그리하여 '알면 사랑한다'고 했다.

이윤하
생태건축연구소 소장·건축가



무주에 위치한 푸른꿈고등학교. 태양광 전지판을 지붕에 부착하고, 자연하수처리시설을 했다. 이 학교는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생태교육을 대안으로 삼는 대한학교이다. 자료제공=노뫼들 건축사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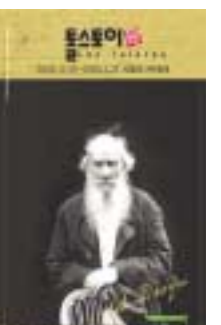
매체비평

전시회 편

톨스토이 전

작품을 통해 그를 체험한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러시아의 대 문호 톨스토이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쟁과 평화' 등의 친필원고를 비롯해 축음기, 육성테이프 등 유물 600여점이 함께 전시됐다. 때문에 이번 전시회는 그와 그의 작품, 그리고 문학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는 1828년 야스나야 폴랴나('숲 속의 밝은 빈터'라는 뜻의 지명)에서 백작 가문의 넷째 아들로 출생했다. 톨스토이의 작가로서 명성은 1852년 '유년 시대'를 발표하면서 시작돼 그 유명한 '전쟁과 평화'를 1869년에 완성했다. 또한 1877년에는 '안나 카레니나'를, 1886년에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등의 단편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출판된 톨스토이 전집이 90권임을 감안할 때 여기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매우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톨스토이의 문학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는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해 공소원 판사로 근무를 하다가 45세의 일기로 죽는다. 이반 일리치는 삼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그 집안에서는 수재라고 불렸다. 그는 장남처럼 고지식하고 냉정한 인간도 아니었으며, 또한 삼남처럼 주책없는 인간도 아니었다. 그는 꼭 중간으로 영리하고 활기가 있으며 사교성이 있고 또한 예의바른 인물이었다. 이반 일리치의 인생관 또한 흥미롭다. 소년시절에도, 또한 후일에 어른이 된 후에도, 절대로 남에게 아첨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 대신 어릴 때부터, 마치 파리가 빛을 따라 모여들 듯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진급, 권력, 남들이 다 기르는 턱수염 기르기, 트럼프 놀이, 사교춤 등에서 결코 남에게 뒤지지도 않았지만, 남들에 앞서가지도 않았다. 성공도 하고, 아이도 낳고, 친구관계도 좋고, 부모 필요한 만큼 축적하고 건강하기도 했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병이 걸리는데 이것을 너무도 가볍게 여겨 치료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결과 그 병이 악화되어 죽는다는 것이다.

독자에게 감명을 주는 것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반 일리치의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지극히 보편적인 일이지만 산 사람들은 자신의 엄연한 죽음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산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에서 인간의 죽음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죽은 것은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어서 참 다행이었구나!" 그리고 난 후 "죽은 사람이 참 안 되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소시민적 근성에 무의식적으로 젖어드는 우리 젊은 지식들이 언젠가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성찰해 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서상국
단국대 노어노문학과 교수